



제2349호 2024. 5. 19. 성령 강림 대축일

제1독서 : 사도행전 2,1-11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3ㄷ-7.12-13

복 음 : 요한 복음서 20,19-2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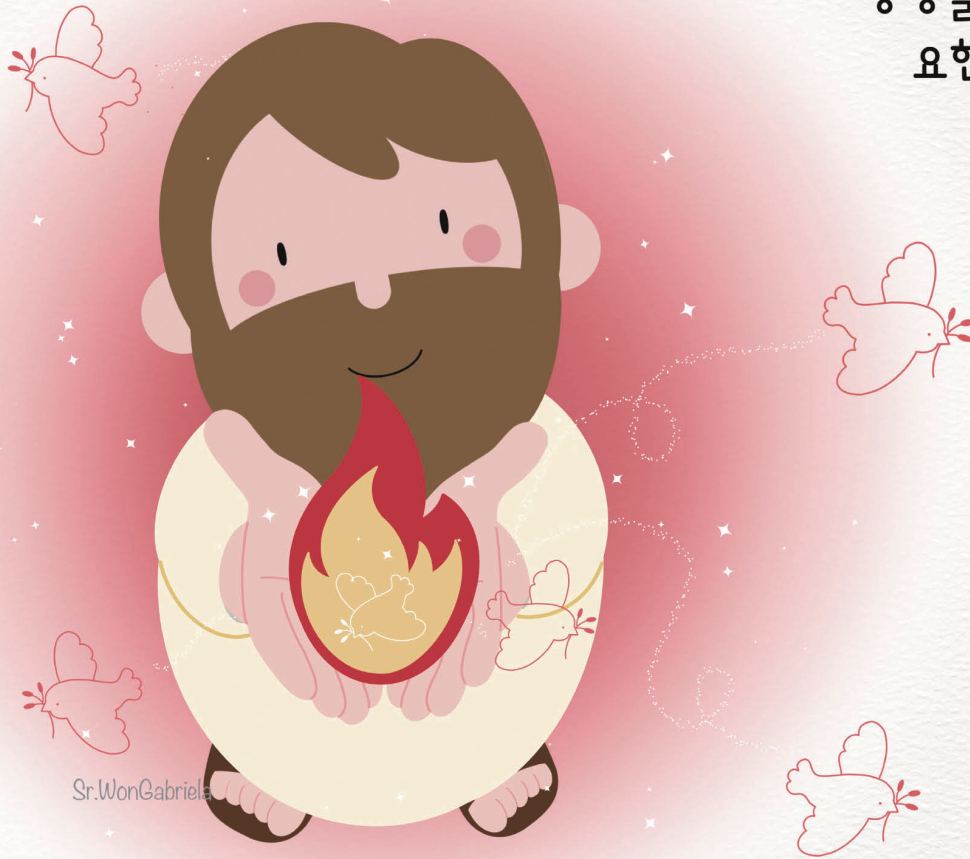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Sr.WonGabriela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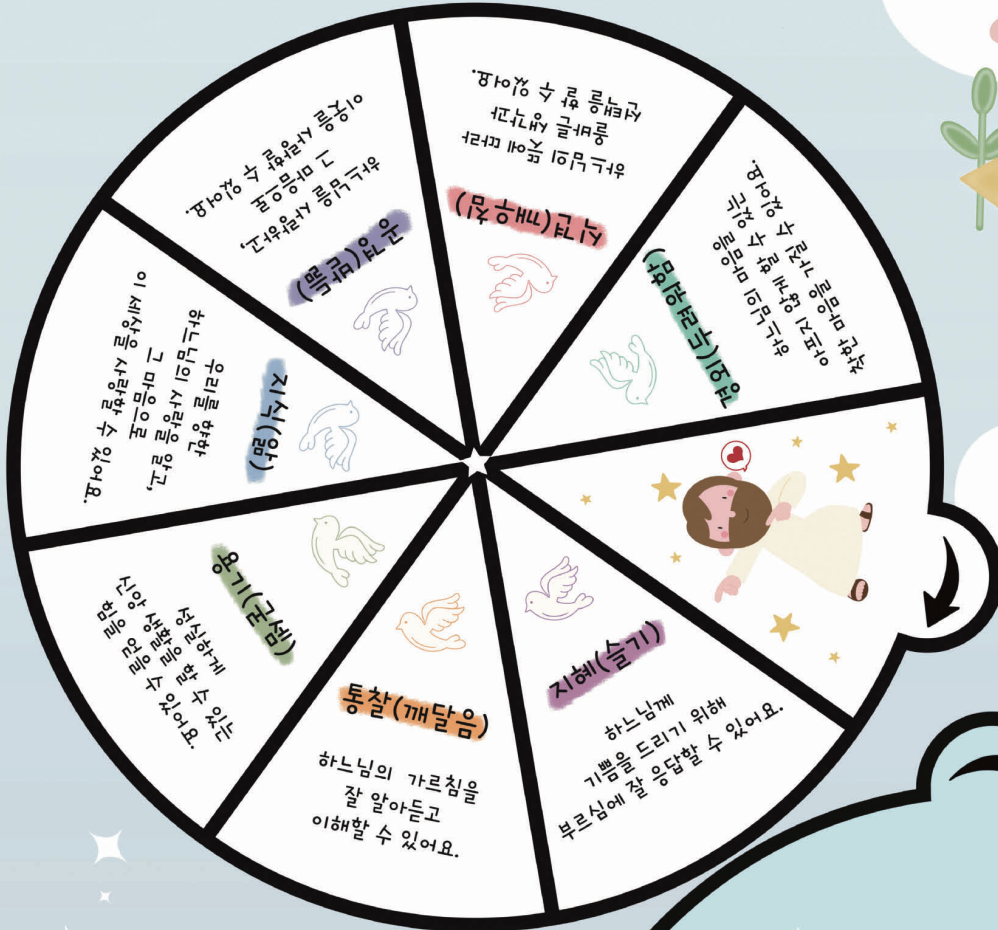
- ✦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알렐루야)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 부 속 가 (4면 하단 참조)
- ✦ 영성 체 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성령님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 칠은’ 돌림판을 작업해서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준비물: 일공 펀치, 할핀, 가위

만드는 방법:

1. 두 가지 돌림판을 가위로 자릅니다.
2. 자른 돌림판을 겹쳐 놓고 가운데 ★ 모양을 일공펀치로 구멍을 내어 할핀으로 고정합니다.

성령처럼 자유롭게!

작은마음 친구들! 부활 시기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달력 안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사도들에게 내려오시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도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방에 숨어 한곳에 모여 있던 사도들에게 불이 내려옵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 오신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사도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가진 것을 공동체와 나누고 한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 숨, 열기나 불과 같은 모양으로, 혹은 '하느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모두 어떤 틀에 갇혀 있거나 굳어져 있지 않은 모습들이지요. 하느님도 그렇게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나 자신이나 사람들을 향해 너무 쉽게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갖습니다. '재는 원래 저래!', '그 사람은 항상 왜 그럴까?', '우리 가족들은 너무 무뎡뎡해!', '나는 역시 이게 안 돼!'. 친구들, 어항 속에 갇혀 지내는 물고기는 그 좁은 곳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마음속 편견과 두려움을 차근차근 지워 보아요!



7지구 답십리 성당
이명진 요셉 신부님



소금통

다음 중 성령 철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 | | | |
|------|------|------|--------|
| ① 지식 | ② 용기 | ③ 선행 | ④ 두려워함 |
| ⑤ 지혜 | ⑥ 공경 | ⑦ 통찰 | ⑧ 깨우침 |



수제 목 하느님 사랑

수상자 김서우 라파엘 (여의도동 성당 2학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라파엘 어린이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라파엘 어린이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가족'을 주제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요. 하느님 사랑 덕분에 엄마와 아빠가 만나셨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하실 수 있었다고요. 라파엘 어린이는 하느님 사랑으로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대요.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미사**

✦ 부 속 가

오 소 서 성 령 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 버 지, 오 소 서 은총주님, 오 소 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 로 자 영 혼 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우소서.
일할때에 휴 식 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 로 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